

# 「テクル」의 문법화와 의미기능\*

- <대상의 공간이동>을 중심으로 -

이정옥\*\*  
jungok-ok@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대상의 공간이동               |
| 2. 「テイク・テクル」구문의 개관 | 4.1 <주체의 공간이동>과의 차이점      |
| 3.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 4.2 이동물                   |
| 3.1 선행연구           | 4.3 <대상의 공간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 |
| 3.2 연구목적           | 5.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          |
|                    | 6. 마치며                    |

主題語: テクル(Tekuru),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대상의 공간이동(Spatial move of objects), 의미기능 (Semantic function)

## 1. 들어가며

(1) 家主が家賃を上げてきた。

예(1)과 같은 예문을 접했을 때, 일반적으로 「家主が家賃をあげる」라는 사태 자체가 나 혹은 화자쪽의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예 (1)과 같은 예문은 「テクル」전체 구문에 있어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지, 이러한 예문이 생성되게 된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전향동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항상 「テクル」구문이 부정적인 뉘앙스만을 띄게 되는지에 관하여도 고찰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テイク・テクル」구문의 전체 개관을 통해 본고의 고찰대상과 본고의 입장을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349)

\*\*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확실히 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소위 「テクル」의 대상이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본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논문의 본론은 3절과 4절이라 할 수 있다. 3절에서는 <대상의 공간이동>과 <주체의 공간이동>의 차이점을 알아본 후, <대상의 공간이동>에 있어서의 이동물의 차이와 <대상의 공간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의 문법화의 진행과정을 전향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4절에서는 이러한 <심리이동>이 나타내는 의미기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テイク・テクル」구문의 개관<sup>1)</sup>

일본어에는 동사의 「テ」형에 한정된 몇 개의 동사가 후접하여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기능 소위 조동사적인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다. 寺村(테라무라 1984:123)에서 예로 든 다음과 같은 동사류가 대표적인 보조동사라고 할 수 있겠다.

寺村는 어스펙트 체계내에서 2차적인 어스펙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a,b,c의 세 종류를 들고 있다.

a (～シテ)イル、アル、シマウ、イク、クル

b (～シテ)オク、ミル、ミセル

c (～シテ)ヤル、アゲル、モ라우、イタダク、クレル、クダサル

이들 중 「テイク・テクル」보조동사 구문만을 간단히 개관하고자 한다.

「テクル」구문의 의미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본논문에서는 「テクル」구문을 「クル」의 의미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油井(유이 1996), 益岡(마스오카 1997), 山本(야마모토 2000)등의 선행연구와 형태적인 관점에서 「テクル」구문을 고찰한 森山(모리야마 1988)의 연구를 재고한 후 문법화<sup>2)</sup>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李(2013)의 분류를 소개하

1) 1절의 내용은 李(2011, 2013)에 소개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2) 일반적으로 문법화란 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립가능한 내용어(content word)가 실질적인 의미, 자립성이 희박해져 문법기능만을 담당하는 기능어(function word)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기능어화, 문법형식화, 형식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언어학적으로 문법화의 가장 큰 특징은 표백화(bleaching)과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를 들고 있다. 이상은 日野(히노 2001), 三上(미카미 1972), 三宅(미야케 2005)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라는 용어는 통시적연구에서만 사용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공시적연구에 있어서도 문법화라는 시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三宅(2005:67-68)는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一つに、同一の形式で、内容語的な用法と機

고자 한다.

<표 1>은 李(2013)을 인용한 것으로 일본어의 「テイク・テクル」의 문법화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 <공간이동>, <대상이동>, <심리이동>, <시간이동>은 益岡(1997)에 따라 문법화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채택한 용어임을 밝혀둔다.

<표 1> 「テイク・テクル」구문의 개관

		テクル	テイク
주체의 공간이동		ご飯を食べてきた	パンを買っていった
대상의 공간이동		酒を送ってきた	×
심리이동		彼があやまってきた	×
시간이동	개시	雨が降ってきた	×
	동작의 개시	ずっと研究してきた	これからどうやって生きていくんだろう
	변화의 개시	だんだんやせてきた	もっと先生らしくなっていくんだろう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보조동사구문을 <문법화>라는 입장에서 파악하여 동일한 형태라 하더라도 내용어(内容語)적인 용법과 기능어(機能語)적인 용법이 공존할 경우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통어적인 특징이 의미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i) 전향동사와 「クル」와의 분리가능성 ii) 착점구(着点句)와 「場所名詞ニ」와의 공기 여부라는 테스트프레임을 통하여 분류하였다. 이하 각분류에 속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체의 공간이동>이다.

「テクル」구문은 전향동사와 「クル」가 분리가능하며 「場所名詞ニ」와의 공기 또한 가능하다. 전향동사와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전향동사와 「クル」모두 본동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함을 의미한다.

能語的な用法を合わせ持つ場合、その用法間の連続性、および有機的な関連性を捉えることが可能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中略)他の一つは、前述の「有機的な関連性が捉えられ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の帰結として、文法化により作られた機能語の抽象的な意味、あるいは文法機能を説明しようとする際に、文法化される前の内用語としての意味からの類推が可能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 첫째 동일한 형식으로 내용어적인 용법과 기능어적인 용법을 동시에 지닐 경우, 그 용법간의 연속성 및 유기적인 관련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기적인 관련성을 파악한다는 것의 귀결로, 문법화에 의해 만들어진 기능어의 추상적인 의미, 혹은 문법기능을 설명하고자 할 때, 문법화되기 전의 내용어의 의미로부터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공시적연구에 문법화라는 시점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太郎は帰りに五月さんとスパゲッティを食べてきた。<太郎>  
 (2-1) 太郎は(私の所に)帰りに五月さんとスパゲッティを食べてきた。  
 (2-2) 太郎は帰りに五月さんとスパゲッティを食べて(私の所に)きた。

다음으로 <대상의 공간이동>과 <심리이동>이다.

전향동사와 「クル」는 분리할 수 없으며, 「場所名詞」와의 공기도 불가능하다. 또한 <심리이동>과 달리 이동하는 것이 대상물인 경우 <대상의 공간이동>으로 다루고자 한다. <대상의 공간이동>과 <심리이동>은 i) 착점구로 「人名詞」를 취할 수 있으며 ii) 「テクル」구문 밖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이동물이 다르다. <대상의 공간이동>의 이동물인 대상물이 추상화됨에 따라 <심리이동>의 의미가 생긴다고 이해된다. 예 (3)은 <대상의 공간이동>이며, 예(4)는 <심리이동>의 예이다.

- (3) 「東京から送ってきた菓子や。今ごろこんな菓子はめずらしい」<金>  
 (3-1) 東京から私に菓子を送ってきた。  
 (3-2) 東京から家に菓子を送ってきた。  
 (3-3)\*東京から菓子を送って(私に)きた。

- (4) 相手も拍子ぬけがして、ついにはあやまってくるに相違ない<さぶ>  
 (4-1) ついには(私に)あやまってくるに相違ない。  
 (4-2)\*ついには(私の家に)あやまってくるに相違ない。  
 (4-3)\*ついにはあやまって(私に)くるに相違ない。

마지막으로 <시간이동>이다.

예(5)와 (6)은 예(5-1) (6-1)과 같이 장소명사와의 공기도 불가능하며 동시에 예(5-2) (6-2)와 같이 전향동사와 「クル」와의 분리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동>으로 분류하였으며 하위분류로서 <변화의 계속>과 <동작의 계속>이 있다. 각각 예(5)와 예(6)이 이들에 속한다.

- (5) 雪はますますはげしくなっていった。<エディ>  
 (5-1)\*雪は(家に)ますますはげしくなっていった。  
 (5-2)\*雪ははげしくなってますますいった。

- (6) 彼はこれまで人から愛され、好意を持たれつづけてきた。<さぶ>
- (6-1)\*彼はこれまで人から愛され、(家)好意を持たれつづけてきた。
- (6-2)\*彼は人から愛され、好意を持たれつづけてこれまできた。

### 3. 선행연구 및 연구목적

1절에서는 본논문의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テイク・テクル」구문의 전체상을 개략하였다. 본논문은 1절에서 살펴본 「テイク・テクル」구문중 「テクル」구문의 <대상의 공간이동>과 <심리이동>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고의 연구 목적을 밝혀두도록 하겠다.

#### 3.1 선행연구

「テクル」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의미기능만큼 그 수도 다양하나, 본논문과 관련성을 지니는 연구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구문과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기술과 의미기능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다른 구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이다.

古賀(고가 2008:241-243)는 「くる」는 역행태표지(逆行態標識<sup>3)</sup>(inverse marker))라는 Shibatani(2003)의 지적을 출발점으로 하여 태(態)와 관련된 「てくる」의 용법을 기능적으로 유사한 수동문, 수수구문과 비교하였다.

山田(야마다 2013 : 18-19)는 일본어의 참여자추적법(参与者追跡法<sup>4)</sup>)의 수단으로는 유형명사구(有形名詞句)에 의한 참여자추적법과 제로명사구(ゼロ名詞句)에 의한 참여자추적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로명사구에 의한 참여자추적법의 일환으로 방향성표현, 태, 대우표현, 모달리티의 인칭제약, 어휘적인 성(性)과 수(數)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 일본어의 수수표현에 의한 참여자추적을 분명히 하였다.

---

3) 古賀(2008)에서의 설명으로 Shibatani(2003)를 직접 참고하지는 못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4) 담화참여자를 담화중에서 추적하는 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예(7, 8)과 같이 일본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더라도 수수표현을 참고로 주어를 추적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구식적인 동사의 경우 예(8-1)과 같이 [주다]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주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山田(2013:18)를 필자가 정리한 것임.

(7) 本をあげた。 (7-1)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8) 本をくれた。 (8-1) 친구가 책을 주었다.

山田(2013 : 18)의 예

山田(2013)는 종래의 일련의 본인의 연구를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교육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기술하고 있으며 「テクル」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テクル」의 의미기능에 관련된 선행연구이다. 「소정의 행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미를 갖는 <영향>이다[所与の行為が当事者に対して重要な結果をもたらす意味をもつ<影響>である]」라고 본 益岡(1997)「대항관계에 있는 즉 마이너스적인 사태(對抗関係にあるすなわちマイナス的な事態)」를 나타낸다고 본 山本(2000), 이광수(2002) 등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 3.2 연구목적

선행연구에서도 기술하였듯이 「テクル」의 의미용법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李(2013)는 「テクル」의 <주체의 공간이동>을 중심으로 상호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논문은 李(2013)에 이어, 일본어의 방향성표현의 하나인 「テクル」의 <대상의 공간이동>과 <심리이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대상이동을 나타내는 「テクル」구문과 공간이동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대상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의 「テクル」구문의 문법화의 방향성을 각 구문의 전향동사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연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テクル」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李(2011)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4. 대상의 공간이동

## 4.1 <주체의 공간이동>과의 차이점

庵 他(이오리 외 2000:116-121)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대상의 공간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9) 実家からお米を(私に) {○送ってきた / X送った}

(10) 田中さんが電話を(私に) {○かけてきた / Xかけた}

우선 대상의 공간이동은 주체의 공간이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주체의 공간이동>의 예로「彼はお米を持ってきた」를, <대상의 공간이동> 으로서는「彼はお米を送ってきた」<sup>5)</sup>를 예로 들어 이들의 차이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동물의 차이점이다.

- (11) 彼がお米を持ってきた。
- (12) 彼がお米を(私に)送ってきた。

예(11)의 경우 이동하는 것은 주체인 「彼」와 대상(객체)인 「お米」이나, 예(12)의 경우 이동하는 것은 대상(객체)인 「お米」뿐이다. 즉, 예(11)은 「彼がきた」를 함의하지만 예(12)는 「彼がきた」를 함의하지 않는다.

둘째, 「イク」와의 관계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 (11-1) 彼がお米を持っていった。
- (12-1)\*彼がお米を(私に)送っていった。 [→彼がお米を(私に)送った。]

「イク」와 「クル」는 일반적으로 반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持ってくる」의 반의어로서는 예(11-1)과 같이 「持っていく」가 성립하지만, 「送ってくる」의 반의어로서는 「送っていく」가 성립하지 않는다(예(12-1)).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한 고찰을 추가하고자 한다.

셋째 예(11)은 예(11-2)와 같이 「場所名詞+二格」과의 공기(共起)가 우선시되나, 예(12)는 예(12-2)와 같이 「人名詞+二格」과의 공기가 우선시된다.

- (11-2) 彼が家にお米を持ってきた。 > (11-3)?彼が私にお米を持ってきた。
- (12-2) 彼が私にお米を送ってきた。 > (12-3) 彼が家にお米を送ってきた。

이 두 예문 모두 「場所名詞+二格」·「人名詞+二格」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정도의

5) <주체의 공간이동>의 예로서 「食べてきた」와 같은 단순한 <주체의 공간이동>이 아니라, 「持ってきた」를 예로 든 이유는 주체의 이동과 함께 대상의 이동도 수반되어, 대상의 이동만을 나타내는 「送ってきた」와의 대조에 적합한 예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차이가 생긴다. 「持ってくる」은 예(11-2)처럼 「場所名詞」가, 「送ってくる」은 예(12-2)와 같이 「人名詞」가 각각 더 자연스러운 공기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는 「クル」가 <주체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場所」를 필요로 하고, <대상의 공간이동>을 나타낼 때는 「人名詞」를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예(11)은 예(11-4)와 같이 전항동사와 「クル」의 분리가 가능하나, 예(12)는 예(12-4)와 같이 분리불가능하다.

(11-4) 彼がお米を持って家<sup>に</sup>きた。

(12-4)\*彼がお米を送って私<sup>に</sup>きた。

이상 4가지 측면에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의 공간이동>과 <주체의 공간이동>과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イク」와 「クル」와의 반의어 관계와 이동물을 중심으로 상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 4.2 이동물

### 4.2.1 「オクル」와 「オクッテイク」

이동물의 문체를 생각하기 전에 「オクッテイク」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체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もってくる」와 <대상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おくってくる」를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면 「オクッテクル」의 대립항은 공란이 됨을 알 수 있다.

[クル] : [イク] = [モッテクル] : [モッテイク] = [オクッテクル] : [?]

그렇다면 비례식처럼 「オクッテイク」의 사용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일까?

가장 먼저 이러한 점에 착안한 사람은 張(초 1986)<sup>7)</sup>인 듯 하다. 張(1986)와 森山(1987: 37)는 일본어는 이동하는 것이 주어일 경우 「オクッテイク」·「オクッテクル」모두 사용가능하나, 이동물이 주어가 아닐 경우는 「オクッテクル」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今仁(이마니 1990)는 「贈り物を送っていく」도 실제로 사용가능하다며 반론하였

6) 예(11-3)의 경우 [?]라고 판단하였다.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자 하면 「私のところに」로 바꾸어야 하며 예(12-2, 12-3)의 경우는 둘 다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12-3)의 「家」의 경우를 자연스럽게 판단한 경우는 「家の私」라고 상정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7) 張(1986)는 森山(1987, 1988)에서의 소개에 따랐다. 張(1986)에 가필을 한 것이 張(1992)이다.

다. 그러나 이 반론은 「\*私は友達に、一度、本を送っていった」가 성립하지 않고 「私は友達に本を何回も送っていった」와 같이 그 사태가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의 경우에만 사용가능하므로 파생적인 의미의 경우만 사용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즉 今仁(1990)가 주장하는 「옥quette」는 반복의 경우에만 성립한다. 본고에서는 張(1986)를 따르며, 이하 예를 들어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13) 会社が終るとすぐ店へ来て、店のはねるまで私を待っていて、どうしても私の家まで送っ  
ていく といって聞かないのよ。 <孤高>

(14) 断わっても、母が無理に校門まで送てくると、私はやけになってプラタナスの大木の根  
本を蹴った。 <忍ぶ>

상기의 예(13, 14)는 주체도 대상도 모두 이동하는 예이다. 이와 같이 주체와 대상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는 3.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체의 공간이동>으로 파악한다. 즉, <주체의 공간이동>의 경우는 「옥quette」도 「옥quette」도 모두 성립한다.

(15) 帝相カリルは、このような場合の習慣に従ってスルタンの死を直ちに公表せず、急使をマ  
ニサに送ったのだ。 <コンス>

예(15)는 <주체의 공간이동>이 아니라, 대상만 이동하는 <대상의 공간이동>이다. 예(15)를 통해, <대상의 공간이동>의 경우는 「옥quette」가 아니라, 「옥」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의 공간이동>의 경우는 「옥quette」의 사용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옥레테クル」와 같이 <수동형>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

(16) そんな頃、次兄の妻から見舞いに、手作りののれんが送られてきた。 <明日>

예(16)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次兄の妻が手作りののれんを送ってきた」가 되며, 이동물은 「手作りののれん」임을 알 수 있다.

(17) Kさんの長女から毎年秋田米が送られて来、我が家からも毎年紅鮭が送られていく。 <明日>

예(17)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Kさんの長女が毎年秋田米を送って来、我が家も毎年紅鮭を送って行く」가 되며, 이동물은 「秋田米」와 「紅鮭」이다. 이 예를 통해 이동물만의 이동인 경우에도 「テイク」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 예문은 「毎年」와 공기하고 있어, 일회성이 아닌 반복성을 띄는 예문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オクル」와 「オクッテイク」와 「オクッテクル」는 「일회적인 대상물의 이동」의 경우 「オクッテクル」는 「オクル」와 대립항을 이룬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상기의 비례식에서 「?」부분에 「オクル」가 성립하는 것은 일회적인 대상물의 이동의 경우인 것이다. 환언하자면, 비례식 부분에 「オクッテイク」가 해당하는 경우는 <반복적인 대상의 이동>(=예(17))의 경우이거나, <주체의 공간이동>인 경우(=예(13))이다.

#### 4.2.2 이동물의 차이

이상에서 <대상의 이동>이 일회적이며 화자가 二格을 취하는 구심적(求心的)인 방향성을 지닌 경우 「テクル」구문의 성립이 가능함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향동사에는 「オクル」와 같이 동사 자체에 이동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庵 他(2000)도 지적하였듯이 [대상의 이동]이나 [이동에 준하는 동사]가 온다. 이 지적을 참고로 <대상의 공간이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향동사의 종류와 이동물의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 동사(구)는 「テクル」구문의 전향동사로 쓰여 <대상의 공간이동>을 나타낸다.

- i) 「オクル」와 같이 그 동사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있는 경우<sup>8)</sup>
- ii) 「手紙を書く」와 같이 동사자체에는 이동의 의미가 없으나 「テクル」구문의 전향동사로 쓰여 <대상의 공간이동>을 나타내는 경우<sup>9)</sup>
- iii) 「わびる、斷る」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의 이동은 없지만, 화자측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사의 경우

i)과 ii)를 전향동사로 하는 「テクル」구문은 <대상의 공간이동>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8) 이와 관련하여, 일본어 동사 중에는 「イク、クル」와 같은 방향성의 도움 없이 그 동사 자체에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동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문에서의 방향성 해제 등과 관련하여 논문 작성을 고려중이다.

9) 「手紙を書いてきた」와 같이 이동물이 구체물인 경우도 있으나, 「本を読んできた」와 같이 이동물이 소리와 같은 구체물이 아닌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대상의 공간이동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사 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르다. ii)와 iii)를 전향동사로 하는 「テクル」구문은 동사 자체에 이동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이동하는 대상물의 구체성에 있어 그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화자쪽으로 대상만 이동하는 「テクル」구문은 <대상의 공간이동>만이 아니라, 사태의 <심리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sup>10)</sup>.

i), ii), iii)을 전향동사로 취하는 「テクル」구문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이유는 <대상의 공간이동>과 <심리이동>을 나누어 생각하기에는 그 통어적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통어적 기준이 유사하나, 이동물만이 다르다고 파악하는 편이 문법화의 설명에 적합하며, 분류를 최소화한다는 장점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통점을 중시하여 <심리이동>도 <대상의 공간이동>에 넣어 다루고자 한다. 이동물은 「モノ・固体」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사태」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4.3 <대상의 공간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

「わびてきた、断ってきた」와 같은 <심리이동>을 나타내는 「テクル」구문에 관한 지적은 크게 전향동사의 종류를 문제시한 森山(1988)와 「テクル」구문 자체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한 益岡(1997), 山本(2000)가 있다. 하지만, 현상의 지적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상세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바탕으로 전향동사의 종류와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テクル」구문이 <심리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의 전제조건으로는 동작주는 제3자이어야 하며, 화자측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구심성을 필요로 한다.

(18) 私は知らない人に住所を聞いてきた。 <주체의 공간이동>

(18-1) 知らない人が私に住所を聞いてきた。 <심리이동>

이 전제는 「テイク」구문이 <심리이동>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같은 전향동사라 하더라도 동작주와 받아들이는 측(受け手側)가 누구이냐에 따라 「テクル」구문의 해석이 바뀐

10) 이러한 의미확장은 주로 문법화라고 하나, 益岡(2013:21~35)는 モノ名詞가 コト名詞로 확대화되는 고토 확장(コト拡張)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마스오카에서는 고토확장의 예로 「テクレル」구문과 「ノダ」구문을 예로 들고 있지만, 본고의 고찰대상인 「テクル」도 モノ의 수수에서 コト의 수수로 확장되는 고토확장의 일례로 다루기에 적합한 구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예(18-1)은「知らない人」라는 제3자가 동작주이며, 「私」가 받아들이는 입장(受け手)이므로 <심리이동>의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예(18)은 동작주가 「私」이므로 <심리이동>의 해석은 불가능하며, 자연스럽게 <주체의 공간이동>의 의미가 된다.

森山(1988)은「テクル」의 <働きかけの方向形態> 와 공기가능한 동사구는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抽象的な移動を表す、言う、怒る、攻撃する、信頼する、責める、頼む、頼る、伝える、連絡する、のような動詞句がある。これらは、情動的な移動(伝達)を表すものや、情動的な移動なしに態度だけを表すもの、さらに、「銃撃する」「攻撃する」のような、必ずしも移動の意味が前面に出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対象に対して方向づけが与えられるような動詞もある」(1988 : 194)

이 지적을 참고로 <심리이동>의 해석이 가능한 전향동사의 통어적인 특징과 의미적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어적인 특징으로서는 i) 전향동사가 「二格」을 취한다. ii) 수동문의 동작주마커는 「カラ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의미적인 특징으로는 i) 언어행동을 나타낸다. ii) 태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상의 특징을 동사 「言う」를 예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山浦は相手を殴りながら、傍で茫然としている鮎太に言った。 <あす>

(19-1) いましがた王から、一千五百騎の指揮をまかせると言われたのである。 <コンス>

(19-2) その頃、CMソングの作詞や、音楽番組の構成などをやっていた私に、新番組のスク립トを書いてほしいと言ってきたのは <風>

동사 「言う」는 의미적인 특징으로 「언어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통어적으로는 예(19)와 같이 「二格」을 취하며, 수동문의 경우 예(19-1)처럼 「カラ格」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예(19-2)처럼 「言ってきた」의 형태로 <심리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

森山(1988)와 奥田(오쿠다 1983 : 300)를 참고하여, 이들 동사를 재분류해 보면, 「テクル」구문이 <심리이동>이 되는 전향동사(구)는 다음과 같다.

i) 언어행동을 나타낸다

「いう、はなす、かたる、しゃべる、ささやく、といあわす、きく、しらせる、つげる、うったえる、こたえる、もうしあげる、もうしこむ、あいさつする、電話する、紹介す

る、報告する、相談する、説明する、連絡する、かく、伝える、電報を打つ、声をかける」 등

ii)태도를 나타낸다

ii- i)언어행동의 태도

「お願いする、もとめる、要求する、せびる、ねだる、すすめる、あやまる、わびる、ちかう、約束する、報告する、怒る、信頼する、断わる、責める、頼む、頼る、抗議する、喧嘩を売る、命令をだす」 등

ii-ii)태도

「銃撃する、攻撃する」 등

## 5.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

3.3절에서 「テクル」구문이 <대상의 공간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 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전향동사의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통어적인 특징과 의미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향동사가 「テクル」구문에 사용되어 <심리이동>을 나타낼 때 그 사태에 대한 평가 즉 화자의 심리는 어떠한 것일까.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필자가 주장했었던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입장의 변화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益岡(1997), 山本(2000)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재고하고자 한다.

益岡(1997)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들 형식은 당행위가 당사자에게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의미를 갖는 <영향>]이라고 지적하였다.[これらの「テクル」形式は所与の行為が当事者に対して重要な結果をもたらす意味をもつ<影響>である]

(20) 相手チームはエースをたててきた。

(21) 委員会が調査結果を知らせてきた。

또한 山本(2000)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テクル」는 [<대항관계에 있는 마이너스적인 사태>] <対抗関係にあるすなわちマイナス的な事態>라고 하였다.

(22) (野球で)相手チームは初回からがんがん打ってきた。

(23) 隣の人が「うるさい」といってきた。

李(2011)는 「テクル」와 「テクレル」가 문법화의 정도에 따라 양구문의 의미기능에 연관성이 있음을 밝힌 논문이다. 李(2011)에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テクル」구문 형식 자체는 문법형식으로서 고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의 성립에 불필요한(redundant) 「二格」을 취함으로써 <피해>라는 의미기능을 띄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론으로 인해 「テクレル」와의 대비에 중점을 두어 심리이동의 「テクル」의 의미기능을 <+negative><sup>11)</sup>로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 있어 山本(2000)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례를 통해 본 결과 항상 <+negative>의미기능이 항상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는 예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24) いいよ、OKと返事返したのに、何にも言ってこないの。ありがとう、よろしく、くらいほしいよね

예(24)와 같이 「テクル」가 사용된 선행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적인 의미기능이 수반된다고도 파악할 수 있으나, 후속문을 시야에 두었을 때는 「テクル」자체에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수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의 존재를 통하여 본논문에서는 「テクル」의 의미기능을 <+negative>라는 의미기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상정할 수 있는 어느 사태가 화자쪽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심리이동>을 나타내는 「テクル」는 그 사태의 상대방으로 이미 상정되었거나 상정가능한 상대쪽으로 그 사태가 이동하여 영향을 미치는 형식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심리이동>의 「テクル」구문의 전향동사는 격체제(格体制)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i) 전향동사가 상대로 「二格」을 필수보어로 취하는 경우
- ii) 전향동사가 상대로 「ヲ格」을 필수보어로 취하는 경우
- iii) 전향동사가 상대로 「~ニ対シテ」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

11) <+negative>는 「テクレル」의 <+positive>라는 의미기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피해><부정적인 뉘앙스>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우선, 전향동사가 상대로 「二格」을 필수보어로 취하는 경우의 예문을 보도록 하겠다. 다음 예문들은 「言う」를 전향동사로 취한 것들이다.

- (25) 隣の人が「うるさい」といってきた。(山本(2000)의 예 = 예(23))。
- (26) タラタラ言ってくる。
- (27) すみませんーと言ってきたので、私はにっこりほほ笑んだ。
- (28) とうとう言ってきたわよ。おめでとうって。

예(25, 26)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파악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27, 28)과 같이 긍정적인 사태로도 파악되어진다. 즉, 「テクル」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기능이 항상 수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ii)의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겠다.

- (29) チカンがおしりを触ってきた。
- (30) 彼が私を誹謗してきた<sup>12)</sup>。

예(29)는 「おしり」의 소유자인 「私」가 생략되어 있을 뿐으로 상대방은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사 「さわる」의 경우 「私のおしりにさわってきた」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i)의 일종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i)과 ii)의 중간적인 타입의 동사라 할 수 있겠다. 이들 예문은 동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해석이 우선 시되지만 문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리라 본다<sup>13)</sup>.

iii)과 같은 전향동사를 갖는 「テクル」구문은 「テクル」구문의 의미기능을 생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 (31) 相手チームはエースをたててきた。(=예(20))
- (32) (野球で)相手チームは初回からがんがん打ってきた。(=예(22))
- (33) 家主が家賃を上げてきた。(=예(1))
- (34) 友達面をしてきた。

12) 「低学歴者やフリーターを散々誹謗中傷してきた荒らし屋」와 같이 「誹謗中傷してきた」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13) 실례는 없었지만 「?彼がやっと私を誹謗してきた(「彼」が私を誹謗できるぐらい成長してほしいと願っていた場合)」와 같은 예문도 성립가능하리라 본다.

이상의 예는 모두 사태 성립에 관여하지 않는 받아들이는 측(화자측, 受け手側)이 「テクル」 구문이 됨으로써 그 사태에 관여하는 예들이다. 전향동사가 필수보어로서 「二格」이나 「を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예문들이다.

(31-1) \* 相手チームは(私のチームに)エースをたてた。

(32-1) \* (野球で)相手チームは初回から(私のチームに)がんがんだ。

「テクル」구문도 iii)의 예와 같이 전향동사가 「二格」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テクル」구문이 됨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를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해 <피해>의 의미기능이 생긴다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주안점을 두어 문의 성립에 불필요한(redundant) 「二格」을 취함으로써 <피해>라는 의미기능을 띄게 된다고 파악한 논문이 李(2011)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예문은 「我がチームに対してエースを立てる」·「私に対して友達面をする」와 같이 「~ニ対シテ」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전혀 사태 성립에 관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음의 예(35-37)과 같이 스포츠 중계에서 이러한 예문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대항하는 상대가 있는 경우 사용됨을 말해주고 있어 「~ニ対シテ」의 상정이 용이한 만큼 「テクル」의 사용 역시 용이해짐을 알 수 있다.

(35) 向こうが何をしてくるか分からないからね。 (스모중계방송)

(36) フランスはオフサイド作戦をよくつかってきますからね。 (프랑스전 축구 중계방송)

(37) ゾンディフェンスに変えてきましたね。 (농구 중계방송)

물론 「テクル」의 이러한 영향성은 본동사 「くる」에 잠재되어 있었던 의미임은 명백하다.

(38) 今日は着物できたか。

(39) そうきたか。

그렇다면 이와 달리 화자에게 있어 궁극적인 사태를 명시화하고자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선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40)?彼がほめてきた。 < (40-1) 彼がほめてくれた。

(41)?彼が手伝ってきた。 < (41-1) 彼が手伝ってくれた。

(42)?家主が家賃を下げてきた。 < (42-1) 家主が家賃を下げてくれた。

(43)\*家主は家賃を上げてくれた。 < (43-1) 家主が家賃を上げてきた。

예(40-42)의 전향동사 「ほめる、手伝う、家賃を下げる」 등은 일반적으로 화자에게 있어 고마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テクル」구문과 함께 사용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수반되기 쉽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유지하면서 방향성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テクレル」구문이 사용된다. 예(43)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을 통하여 「テクレル」구문과 「テクル」구문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sup>4)</sup>.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만 치중하면 「テクル」의 정확한 의미기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고하였다.

## 6. 마치며

이상의 고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소명사를 필요로 하는 <주체의 공간이동>의 「テイク」 「テクル」구문 중 「テイク」구문은 상대를 필요로 하는 <심리이동>구문에의 문법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심리이동>의 「テクル」구문은 구체적인 <대상의 공간이동>이 문법화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것으로 <심리이동>은 전향동사가 상대로 「二格」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二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태적으로 「二格」을 취하지 않는 경우라도 「~ニ対シテ」라는 상대를 상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テクル」의 의미기능으로는 <+negative>(피해, 부정적인 뉘앙스)라는 의미기능을 생각하기 쉬우나 모든 「テクル」구문에 이러한 의미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negative>(피해, 부정적인 뉘앙스)전용의 형태가 아니라 그 사태의 상대가 이미 상정되었거나 상정가능한 상대에게 그 사태가 영향을 미치는 형식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앞으로는 심리이동을 나타내는 「テクル」구문에 「相手チームはエースを立ててきた」와 같이 「夕」 형태를 취한 예문이 많다는 점, 수동태와의 차이점, 그리고 「\*(彼が怒っていて)急にコップを壊してきた」와 같이 타동성이 높은 동사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예문을 통해 「テクル」형의 의미와 결부시켜 고찰하고자 한다.

14) 「テクレル」와 「テクル」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 논문이 [李\(2011\)](#)이다.

**【參考文獻】**

- 이광수(2002)「日本語「てくる」文構造」『日語日文学研究』43輯, 韓国日語日文学会, pp.109-124
- 庵功雄 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16-121
- 李廷玉(2011)「「テクル」構文と「テクレル」構文の相關關係」『日本言語文化』19,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 \_\_\_\_\_ (2013)「主体の空間移動を表すテイク・テクルの連続性」『日本語学研究』第38輯, 韓国日本語学会, pp.217-228
- 李廷玉·石井奈保美(2012)「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テイク・テクルの産出」『日本語学研究』第35輯, 韓国日本語学会, pp.327-341
- 今仁生美(1990)「VテクルとVテイクについて」『日本語学』9卷, 明治書院, pp.54-66
- 奥田靖雄(1993)「二格の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むぎ書房, pp.140-149
- 古賀裕章(2008)「てくる」のヴォイスに関連する機能」『ことばのダイナミズム』くろしお出版, pp.241-257
- 寺村秀夫(199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p.114-163
- 張 燐声(1992)「「イク・クル」フォームに見る日本語の性格—中国語と比較して—」林四郎編『応用言語学講座4卷 知と情意の言語学』明治書院, pp.157-181
- 日野資成(2001)『現代語の研究-文法化の理論と応用』九州大学出版部, pp.1-20
- 益岡隆志(1997)「日本語の補助動詞構文」『複文』くろしお出版, pp.181-195
- \_\_\_\_\_ (2013)「コト拡張から見た恩恵構文」『日本語構文意味論』くろしお出版, pp.21-35
- 三上章(1972)『現代日本語序説』くろしお出版, pp.194-200
- 三宅知宏(2005)「現代日本語における文法化」『日本語の研究』1-3, 日本語学会, pp.61-76
- 森山卓郎(1997)「方向・移動の形式をめぐって」『語文』49, 大阪大学国文学研究室
- \_\_\_\_\_ (1989)「テイク・テクルについて」『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 pp.181-198
- 山本裕子(2000)「くるの多義構造『くる』と『~る』の意味の繋がり」『日本語教育』105号, 日本語教育学会, pp.11-20
- 山田敏弘(2005)『新版日本語教育事典』日本語教育学会編 大修館書店
- \_\_\_\_\_ (2006)「文法カテゴリーとしての「方向性」とその談話機能」『日本語文法の新地平3 複文・談話編』くろしお出版, pp.119-135
- \_\_\_\_\_ (2013)「文法をどう教えるか—授受表現を中心に」『日本語教育研究』第25輯, 韓国日語教育学会, pp.17-26
- 油井紀久子(1996)「日本語動詞の意味の抽象化過程—イク・クル・みるの意味分析を中心に」『大阪大学文学部紀要』第36卷大阪大学文学部, pp.1-29

**【예문출전】**

1. CD-ROM版『新潮文庫の100冊』
2. 現代日本語書き言葉均衡コーパス
3. 인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예문은 GOOGLE과 YAHOO 사이트, 그리고 TV에서 수집한 것과 작례에 의한 것임.

---

논문투고일 : 2014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0월 19일

---

〈要旨〉

「テクル」의 문법화와 의미기능

- <대상의 공간이동>을 중심으로 -

본논문은 일본어의 「テクル」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주체의 공간이동과는 다른 <대상이동>을 중심으로 하여 주체이동과의 차이점, <대상이동>에서 <심리이동>으로의 문법화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장소명사를 필요로 하는 <주체의 공간이동>의 「テイク」・「テクル」구문 중 「テイク」구문은 상대를 필요로 하는 <심리이동>구문으로의 문법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심리이동>의 「テクル」구문은 구체적인 <대상의 공간이동>이 문법화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것으로 <심리이동>은 전향동사가 상대로 「二格」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二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형태적으로 「二格」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ニ対シテ」라는 상대를 상정할 수는 있다.

이러한 「テクル」의 의미기능으로는 <+negative>(피해, 부정적인 낱양스)전용의 형태가 아니라 「テクル」는 그 사태의 상대방으로 이미 상정되었거나 상정가능한 상대쪽으로 그 사태가 이동하여 영향을 미치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Grammaticalization and Semantic Function of the “te kuru”

- Focusing on spacial moves of objects-

In this article it is considered that the Japanese "te kuru" form is in the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from a main verb to an auxiliary verb. Based on this consider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acial moves of objects>and <psychological moves> expressed by the "te kuru".

First, I examined about difference of <spacial moves of objects> and <spacial moves of subjects>.

Second, <Psychological moves> can be expressed by an abstract form of the verb "kuru" which is usually used to describe the moves of concrete objects, which illustrates the continuity of grammaticalization. Such <object and psychological moves> are only possible for the verb "tekuru" and do not exist for the verb "te iku".

Third, I asserted semantic function of the "tekuru" is not <malbenefactive> but <affectedness>